

기술분석보고서 | IT

데이터스트림즈(19915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데이터의 흐름에서 AI의 미래까지, 25년 국내 No.1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기업정보(2026.06.08 기준)

대표자	이영상
설립일자	2001.09
상장일자	2014.06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데이터처리솔루션 개발

시세정보(2026.06.08 기준)

현재가(원)	1,619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8
발행주식수	4,268,613
52주 최고가(원)	3,700
52주 최저가(원)	1,50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이영상 외 16인

■ AI-Ready Data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스트림즈(이하 동사)는 2001년 설립 이후 25년에 걸쳐 데이터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를 전문으로 영위해 온 국내 대표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된다. 금융, 공공,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최근 3년간 186개 이상의 고객사에 솔루션을 공급해 왔으며, 특히 데이터 통합(ETL)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14종 자체 개발 솔루션과 10건의 GS 인증

TeraONE™, TeraStream™, DeltaStream™, MetaStream™, QualityStream™ 등 총 14종의 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인 GS(Good Software) 인증을 주요 6개 제품, 10건에 걸쳐 획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R&D 센터에서 전체 인력의 약 35% 수준인 60여 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28.5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AI Transformation 수요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

생성형 AI 확산과 AX(AI Transformation) 트렌드가 빠르게 가속화됨에 따라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수요가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도로공사 ex-GPT(공공기관 AI 구축) 사업 수주 등 공공부문 레퍼런스를 확보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SI기업 MRIC Alliance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IT 컨설팅 전문기업 넥스트I&I와의 공동사업 협력 체결을 통해 금융·공공 고객사 대상의 AI-Ready Data 사업 구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54.9	-16.7	-48.9	-19.2	-49.3	-19.3	N/A	-37.6	N/A	-1,154	-512	N/A	N/A
2024	265.9	4.3	6.4	2.4	6.3	2.4	N/A	4.3	885.7	147	392	20.95	7.85
2025	206.7	-22.3	4.0	2.0	3.4	1.6	15.74	2.1	496.2	80	620	23.88	3.07

데이터스트림즈(199150)

기업경쟁력

국내 유일 풀스택 데이터 솔루션 보유

-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가상화, AI 분석 등 전 영역을 단일 기업이 자체 개발·보유한 국내 유일 사례로 확인됨
- TeraONE™ 플랫폼 내 14종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통합 생태계 구축
- GS 인증 6종 10건 획득 및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으로 기술력 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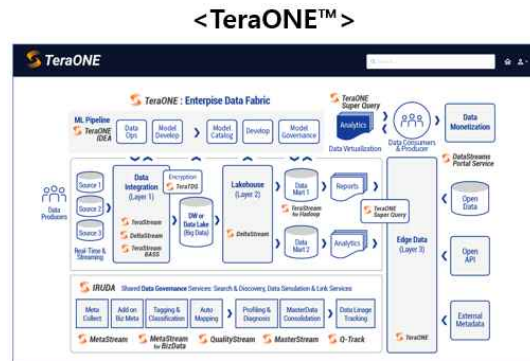
금융·공공 중심의 안정적 고객 기반

- 최근 3년간 금융 90개사, 공공 53개사 등 총 186개 이상 고객사 확보
-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 납품 이력 보유
- 장기 유지보수 계약 기반의 반복 매출 구조로 사업 안정성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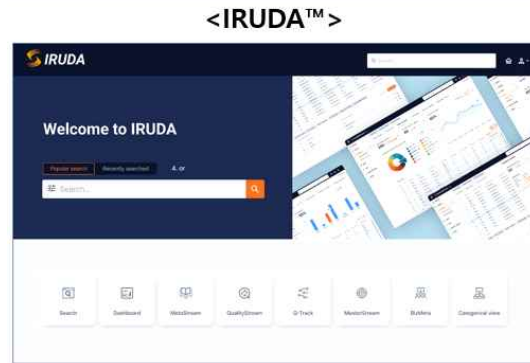
TeraONE™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아파치 하둡 기반에 ETL, 인메모리, 거버넌스, AI 분석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2025년 GS인증(Ver 4.0) 획득 및 AWS 마켓 탑재 완료



IRUDA™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탑재한 전사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LG에너지솔루션·한국은행 등 대형 기관 도입 레퍼런스 보유



시장경쟁력

국내 ETL 시장 점유율 60% 이상

데이터 통합(ETL) 솔루션 TeraStream™이 국내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외산 제품 대비 경쟁우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됨

AI-Ready Data 시장의 고성장 수혜

국내 AI-Ready Data 시장이 CAGR 약 8.5% 성장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를 기록하는 가운데, 동사의 AI/빅데이터 사업이 AX 수요 확대에 따라 직접 수혜 포지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트너 매직퀵드런트 등재 및 글로벌 진출

2024년 1월 TeraStream™이 가트너 매직퀵드런트 Honorable Vendor로 등재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I. 기업 현황

국내 유일 풀스택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기업

동사는 25년간 국내 데이터 통합·거버넌스·AI 분석 전 영역의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온 기업으로, 금융·공공 중심 186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AX 전환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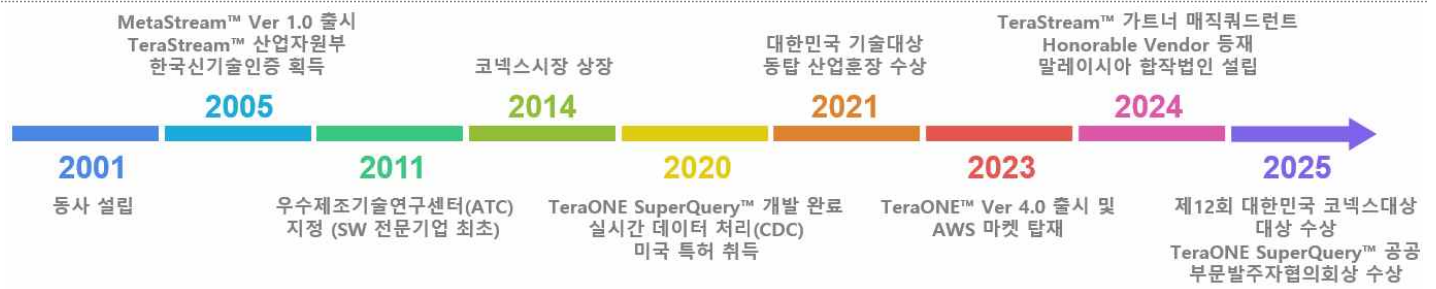
2001년 설립된 동사는 국내 데이터 통합 및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5년간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으로 평가된다.

2005년 MetaStream™ 출시와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SW 전문기업 최초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되어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2020년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인 TeraONE SuperQuery™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차세대 빅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TeraONE™ Ver 4.0을 AWS 마켓에 탑재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가트너 매직퀵드런트 등재 및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코넥스대상 대상 수상 등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이영상 대표이사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미시건주립대학 전자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이공계 전문가로,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사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코소트코리아 이사 재직 후 2001년 동사 창업 이래 25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하며 국내 ETL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표창(2011년), 동탑산업훈장(2021년) 등 정부로부터도 기술 기여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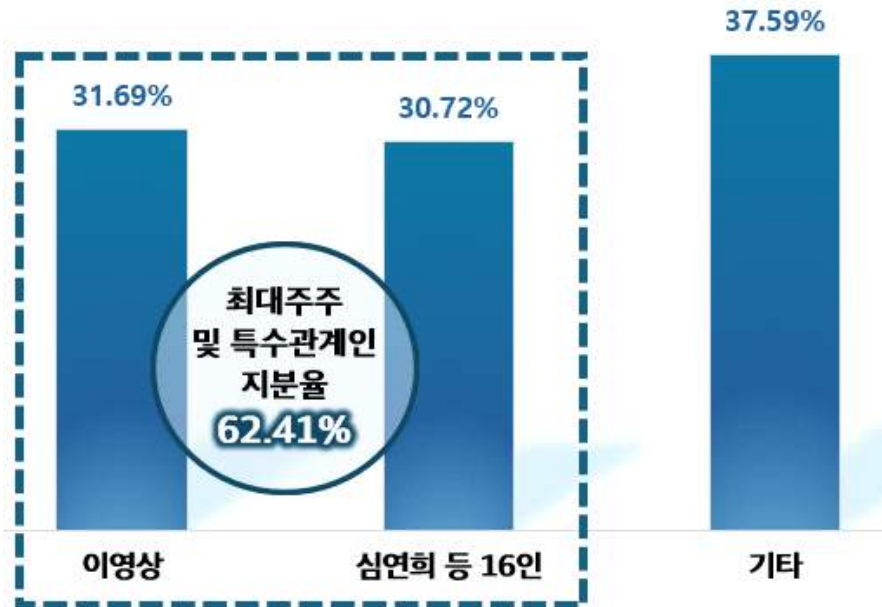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전 회장 및 현 명예회장을 역임하는 등 SW 업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풍부한 창업 경험과 기술 통찰력을 바탕으로 동사의 AI-Ready Data 사업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 주주 현황

최대주주 이영상 대표이사는 31.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연희(13.80%) 등 16인의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0.7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2.41%로, 경영권 안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부문

[데이터 통합 솔루션 사업]

동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사업은 TeraStream™을 핵심으로 하는 ETL 플랫폼 공급과 CDC 방식의 실시간 데이터 이관 솔루션 DeltaStream™, 테스트 데이터 생성·변환 솔루션 TeraTDS™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TeraStream™은 일반 추출 방식 대비 20~30배 빠른 고속 처리 성능을 기반으로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장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삼성화재·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금융기관의 데이터 이행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최대 경제·유통지주사의 CDC 기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2024년) 등에서 확인되듯 제조·유통 분야로도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데이터 통합 솔루션은 주요 SI 업체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과의 협력 영업 체계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어, 중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I/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AI/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TeraONE™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저장·분석·거버넌스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영역으로, AI Transformation(AX) 수요 확대와 함께 성장세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특히 한국도로공사 ex-GPT 사업(공공기관 사내 AI 구축)을 수주하며 공공부문 AI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AWS 마켓 탑재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제공 방식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TeraONE SuperQuery™는 국내 유일의 이기종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으로서 차별화된 경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I 컨설팅 매출이 2024년 6.8억 원에서 2025년 6.9억 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AI 전환 수요 증가에 따른 AI 사업 부문의 점진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사업]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은 AI 기반 데이터 카탈로그 IRUDA Navigator™, 메타데이터 관리 MetaStream™, 데이터 품질관리 QualityStream™, 데이터 흐름관리 Q-Track™, 마스터데이터 관리 MasterStream™ 등 전사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기업들의 AI 도입 전 데이터 품질·표준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한국은행, 엘지유플러스 등 대형 고객사에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LLM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술 및 AI 추천 기능을 IRUDA Navigator™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제품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수동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시장에서 AI 자동화 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사업은 AI/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성 컨설팅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구축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공공·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지보수 사업은 누적 납품 고객사 기반의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로, 매년 50억 원 내외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컨설팅·구축 서비스는 초기 솔루션 판매 이후 장기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사업 부문

사업부문	품목	주요 사업 내용
데이터 통합 솔루션	TeraStream™, DeltaStream™, TeraTDS™	고속 ETL, CDC 기반 실시간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변환 솔루션 개발·공급
AI/빅데이터 플랫폼	TeraONE™, TeraONE IDEA™, TeraONE SuperQuery™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 AI 분석 환경 구성, 데이터 가상화 통합 플랫폼 제공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IRUDA™, MetaStream™, QualityStream™, Q-Track™, MasterStream™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품질·흐름·마스터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AI/빅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유지보수	AI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컨설팅 및 구축 용역 제공, 납품 솔루션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AI 전환 수요가 견인하는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시장의 고성장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시장은 전체 데이터산업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AI 도입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거버넌스·품질관리·통합 영역의 수요가 AX(AI Transformation) 확산과 함께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시장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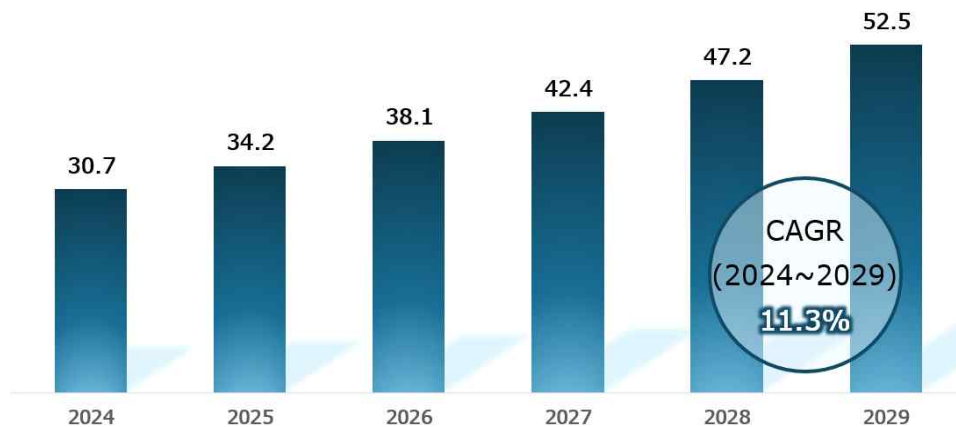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은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시장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통합·데이터 거버넌스·AI/빅데이터 플랫폼 전 영역에 걸쳐 금융·공공·제조·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및 공공기관을 주요 수요처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설립 및 AWS 마켓 탑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시장

2024 데이터산업현황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24년 약 30.7조 원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11.3% 성장하여 2029년 약 52.5조 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단위: 조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4), NICE평가정보㈜ 재가공

이 가운데 동사가 직접 영위하는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부문은 2022~2024년 CAGR 15.7%로 전체 데이터산업 성장률(8.8%)을 크게 상회하며 2024년(추정) 5조 5,343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거버넌스·품질관리 수요 급증이 핵심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AI 데이터 관리 시장

MarketsandMarkets의 시장보고서(2024)에 따르면, 글로벌 AI 데이터 관리 시장은 2023년 251억 달러에서 2028년 701억 달러로 성장하여 예측 기간 동안 CAGR 2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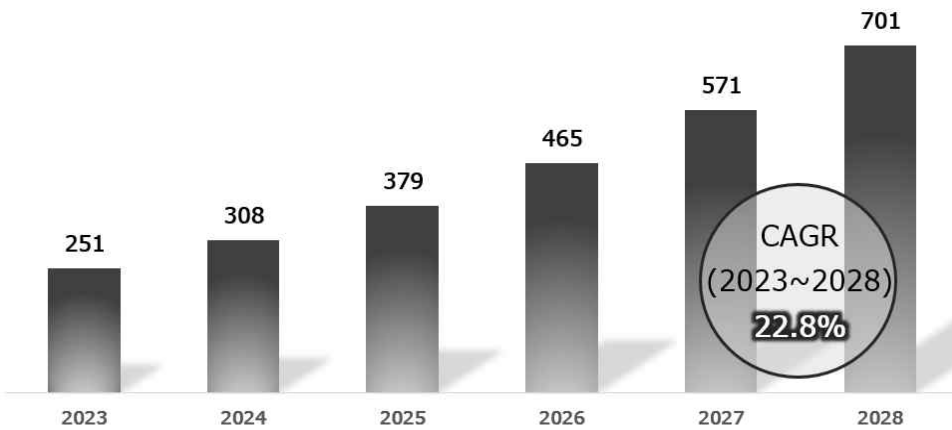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온프레미스 인프라의 제약에서 벗어나 확장 가능한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AI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산업별로는 BFSI(금융·보험) 부문이 방대한 금융 거래 데이터와 강화되는 규제 대응 수요를 배경으로 가장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고객 기반이 강한 동사에게 직접적인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 글로벌 AI 데이터 관리 시장

(단위: 억 달러)



자료: MarketsandMarkets(2024),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국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과 고객사 전환 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으로, 장기간 축적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레퍼런스가 수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 개발 주기가 길고 GS 인증 등 공공 조달 요건 충족을 위한 선제적 기술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소수의 전문 기업이 각 기술 영역을 분점하는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Databricks(AI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Snowflake(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Denodo(데이터 가상화), Informatica(통합 데이터 관리)가 AI 데이터 플랫폼 영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솔루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조달 적합성, 국산화 선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동사의 경우 25년간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레퍼런스와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 완성도를 경쟁 우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사업 현황
위세아이텍	데이터 거버넌스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며 공공·금융 시장에서 동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엔코아	데이터 아키텍처 컨설팅 및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공급 전문 기업으로 금융·대기업 시장에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티원	데이터 품질관리·흐름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며 금융·공공 분야에서 일부 영역 경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25년 축적 기술 위에 LLM·클라우드 AI 역량을 더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

동사는 데이터 통합·거버넌스 전 영역의 자체 개발 솔루션 14종과 미국 특허를 포함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의 28% 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LLM 기반 AI 기술을 플랫폼에 내재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AI-Ready Data 시대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기술

동사의 데이터 통합 기술은 TeraStream™, DeltaStream™, TeraTDS™를 중심으로 국내 ETL 시장의 핵심 기반을 형성한다. TeraStream™은 독자 개발한 고속 다운로드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쿼리 방식 대비 20~30배의 데이터 추출 성능을 구현하며, DB·File 동시 처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DeltaStream™은 DBMS 트랜잭션 로그를 활용한 CDC(Changed Data Capture) 방식으로 기존 온라인 업무에 영향 없이 실시간 변경 데이터를 추출·복제하는 기술을 보유하며, 이와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CDC) 기술은 미국 특허로도 보호되고 있다.

TeraTDS™에는 가독 대칭형 암호화 기술(10-1295069, 10-1297322)이 적용되어 원본 데이터 특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요건이 엄격한 금융·의료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기술

동사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은 IRUDA™, MetaStream™, QualityStream™, Q-Track™, MasterStream™으로 구성되는 전사 데이터 관리 체계를 포괄한다. MetaStream™에 적용된 자연어 처리 기반 용어 자동추천 기술(10-2132142)과 데이터 도메인 자동추천 기술(10-2153259)은 메타데이터 관리 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IRUDA Navigator™는 AI 기반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내장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자산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 추천 모델을 활용한 추천 정보 제공 기술(10-2249466)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한다.

QualityStream™은 Six Sigma 기반의 통계 관리 방식으로 데이터 품질 지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Q-Track™은 테이블·컬럼 레벨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하여 오류 추적 및 영향도 분석을 가능케 한다.

■ AI/빅데이터 플랫폼(AI & Big Data Platform)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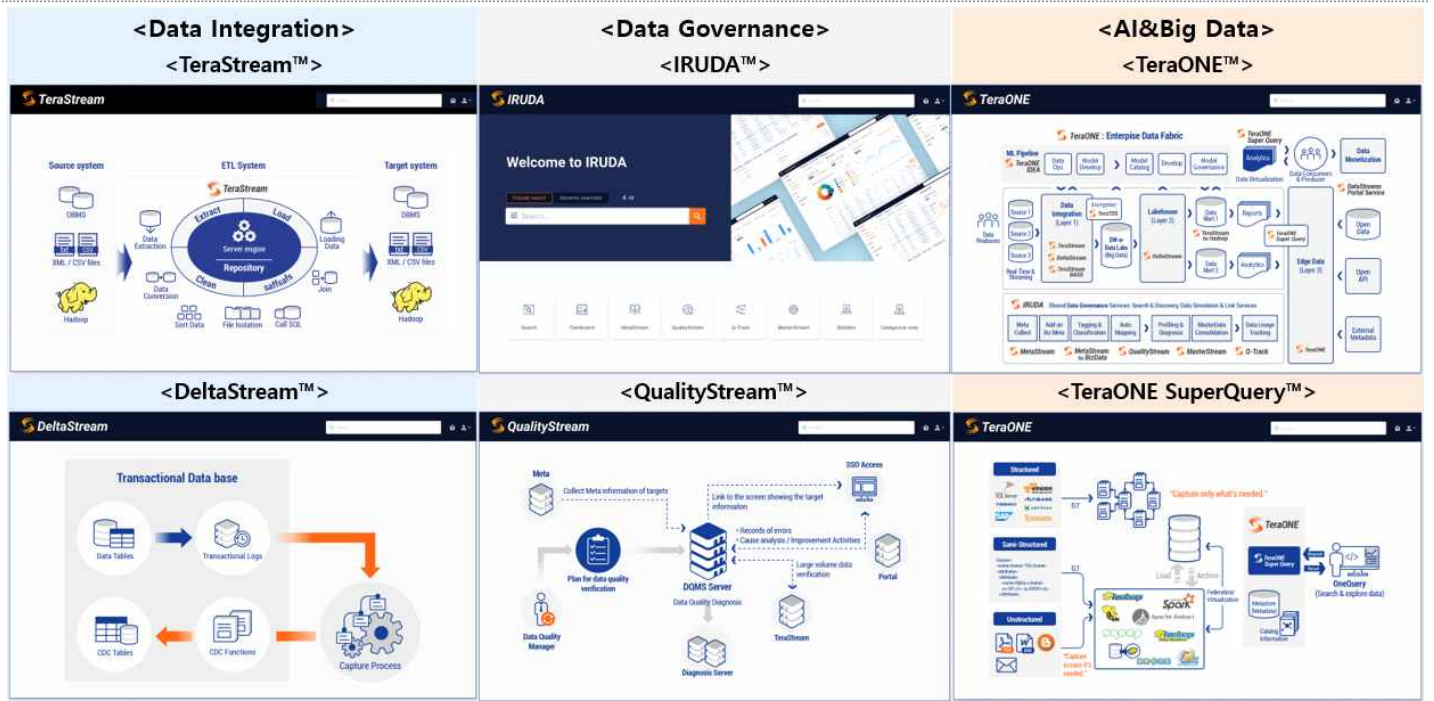
동사의 AI/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TeraONE™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과 TeraONE SuperQuery™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TeraONE SuperQuery™는 국내 유일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솔루션으로, 인메모리 분산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단일 SQL 쿼리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관련 기술은 국제 DB 학술대회(DASFAA2020)에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 최적화와 관련하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동적 리소스 할당(10-2527066), 하이브리드 스파크 클러스터 관리(10-2488270),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네임스페이스 자원 관리 기술(10-2689397)을 연이어 확보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또한 LLM을 활용한 지식 그래프 자동 생성(10-2845839)과 멀티 모델 앙상블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10-2830267)을 최근 확보하여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림 5. 동사 주요 제품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판교 테크노밸리 기술연구소에서 56명 규모의 전담 연구인력이 DI팀(데이터 통합), DG팀(데이터 거버넌스), IRUDA팀, AI연구개발팀 등 6개 팀 체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56.40억 원(매출 대비 22.28%), 2024년 60.30억 원(22.85%), 2025년 58.70억 원(28.58%)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동사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는 2025년에만 LLM 기반 지식 그래프 자동 생성 기술 및 멀티 모델 앙상블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등 AI 관련 신규 특허 2건을 등록하였으며, 2024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2024)에서 AI 및 메타데이터 관련 논문 2편을 발표하는 등 학술 연구 성과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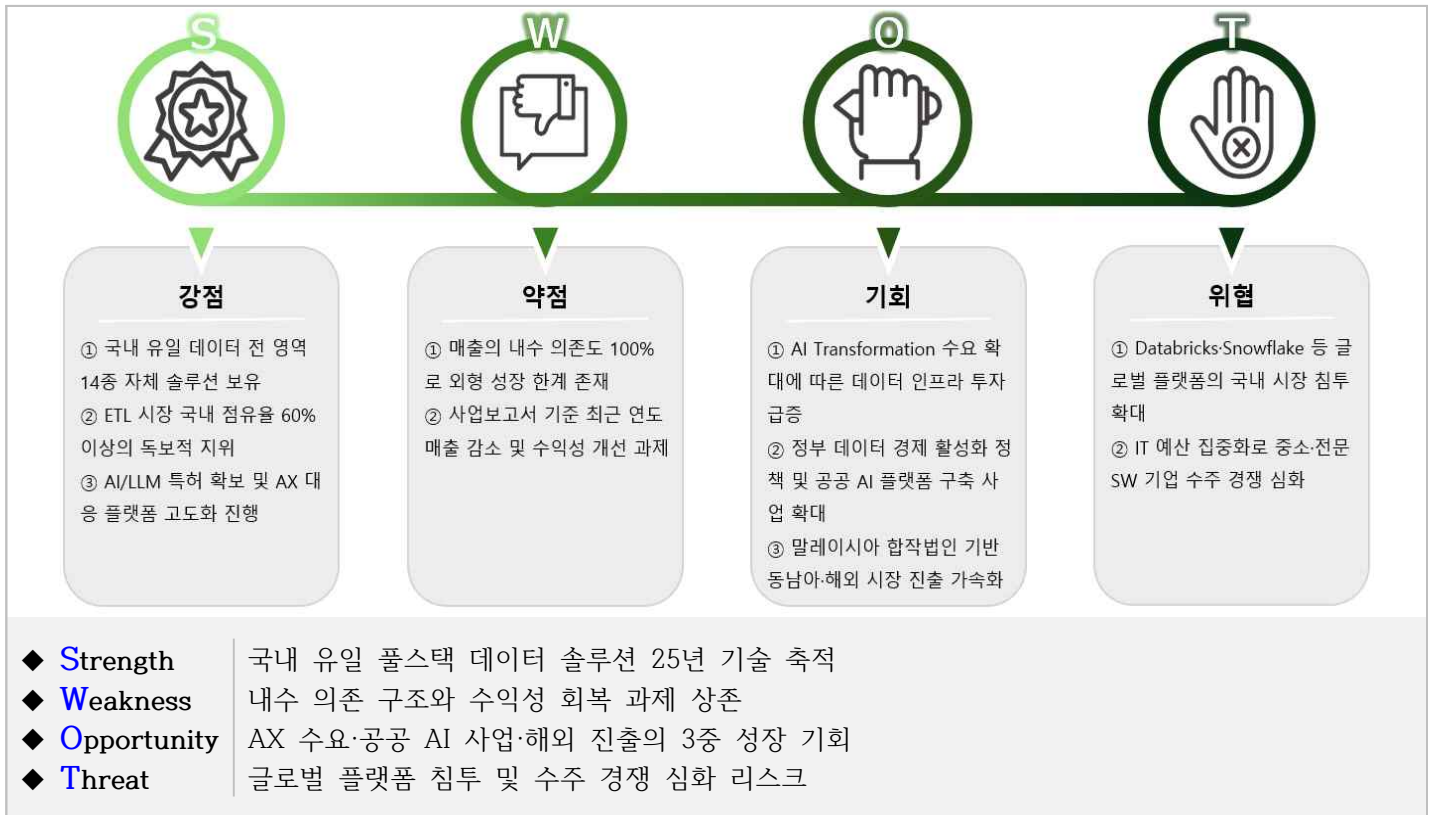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개발비용 계	56.40	60.30	58.7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22.28%	22.85%	2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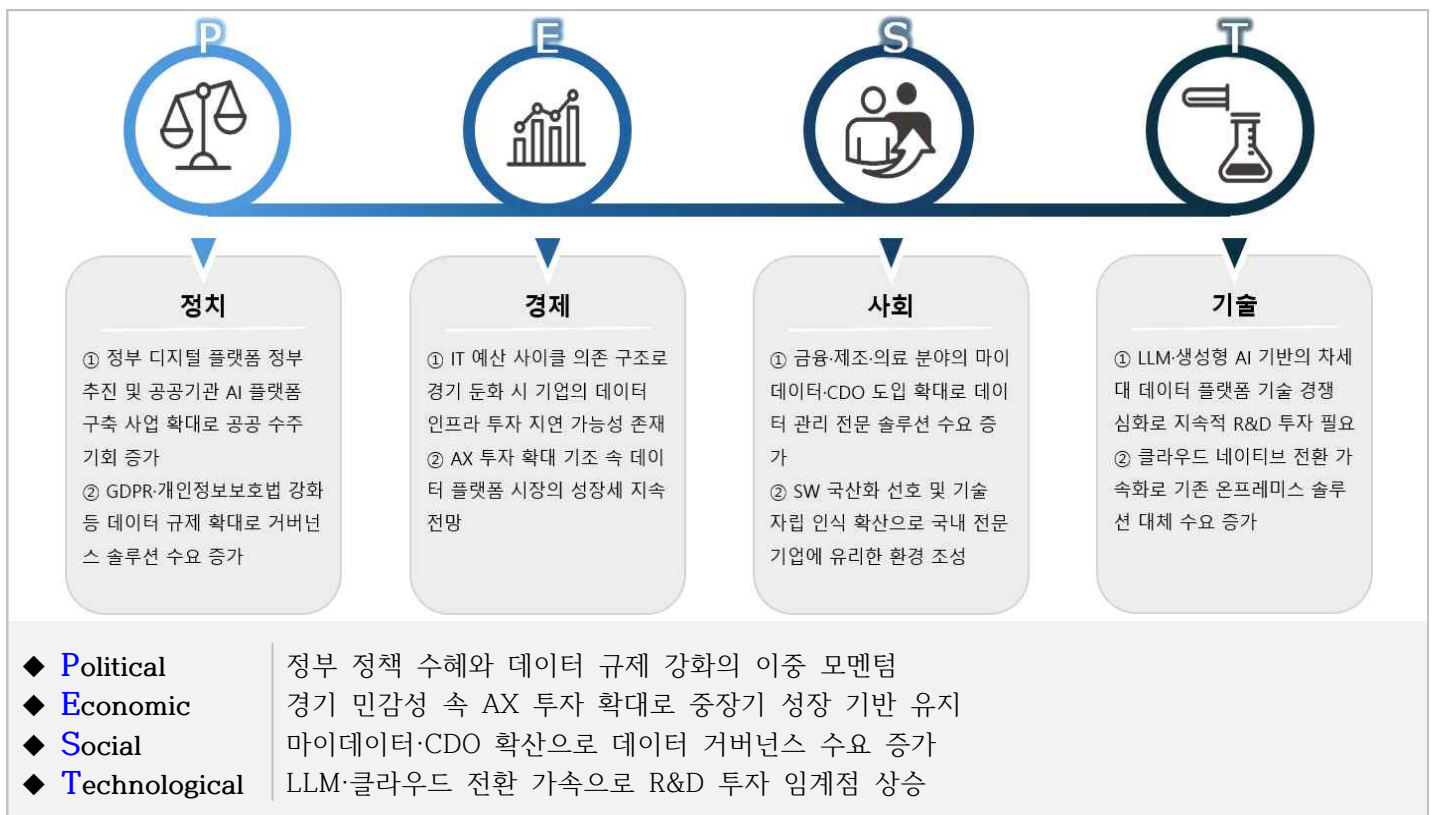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데이터스트림즈(199150)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데이터통합·유지보수 중심 빅데이터 솔루션, 2025년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 유지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국내 B2B 프로젝트 수주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3% 축소된 206.7억 원
 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율 4.5%p 개선(전년 43.9%→39.4%)에 힘입어 4.0억 원(영업이익률
 2.0%)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3.4억 원(순이익률 1.6%)을 시현하였다.

■ 데이터통합·유지보수 합산 64.8%, AI빅데이터·데이터거버넌스 35.3%의 4개 사업영역 구조

동사는 빅데이터 구축·관리·분석 전문기업으로, 데이터통합(TeraStream·DeltaStream),
 데이터거버넌스(MetaStream·QualityStream·MasterStream 등 14종 자체 개발 제품) 및 AI빅데이터
 솔루션·컨설팅·구축서비스를 금융·공공·제조·교육·의료 업종에 제공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데이터통합·AI빅데이터·데이터거버넌스·유지보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2년 305.9억 원에서 2023년 254.9억 원(전년 대비 16.7% 축소)·2024년
 265.9억 원(전년 대비 4.3% 성장)으로 일시 반등한 후, 2025년에는 206.7억 원(전년 대비 22.3%
 축소)으로 재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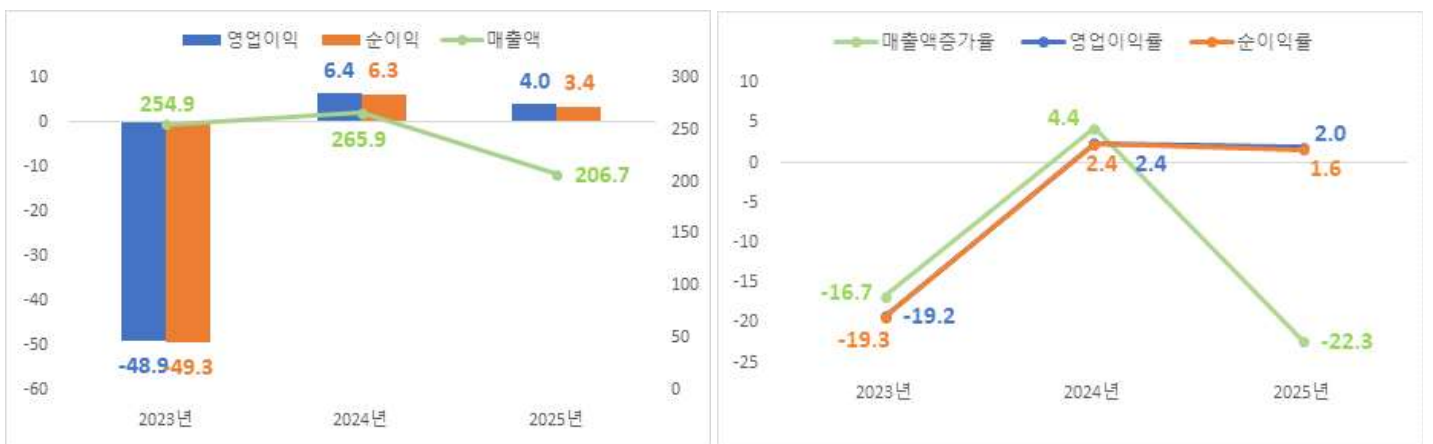
■ 영업이익 4.0억 원(영업이익률 2.0%), 매출원가율 개선으로 2년 연속 흑자 유지

2024년 동사는 매출 265.9억 원, 매출원가 116.8억 원을 나타내어 매출원가율 43.9%를 기록하였으
 며, 판관비 142.7억 원이 계상되어 영업이익 6.4억 원(영업이익률 2.4%)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당
 기순이익은 법인세수익 3.2억 원 효과가 반영되어 6.3억 원(순이익률 2.4%)을 시현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 206.7억 원으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매출원가율이 39.4%로 추가 개선(전년 대비
 4.5%p 하락)되었으며, 판관비 121.3억 원이 계상되어 영업이익 4.0억 원(영업이익률 2.0%)으로 2년 연
 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3.4억 원(순이익률 1.6%)을 기록하였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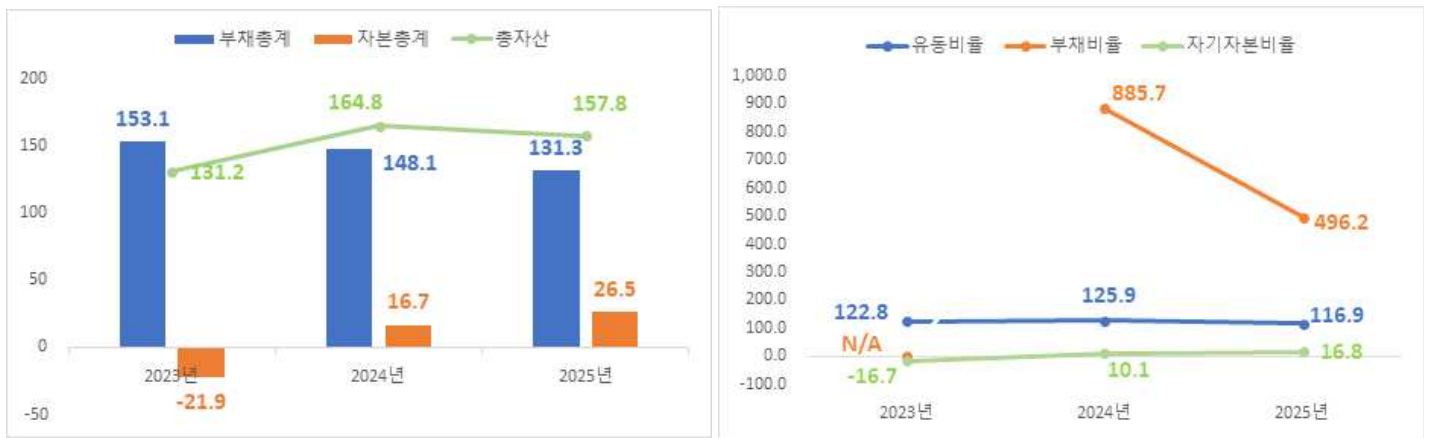
■ 부채비율 496.2%, 자기자본비율 16.8%로 자본잠식 탈피 후 재무구조 개선 지속

2024년 동사는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29.4억 원 인식과 당기순이익 6.3억 원의 영향으로 자본총계가 16.7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되어 202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총계 △21.9억 원)에서 탈피하였다. 총자산은 164.8억 원, 부채총계 148.1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3.1%p 상승한 125.9%, 부채비율 산출 불가에서 885.7%로 정상화, 자기자본비율 26.8%p 상승한 10.1%)

2025년에는 총자산 157.8억 원, 부채총계 131.3억 원, 자본총계 26.5억 원으로 자본잠식 해소 상태가 유지되었다.(유동비율 9.0%p 하락한 116.9%, 부채비율 389.5%p 하락한 496.2%, 자기자본비율 6.7%p 상승한 16.8%) 결손금은 2023말 △92.9억 원에서 2024말 △87.2억 원·2025말 △81.1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4.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254.9	265.9	206.7
매출액증가율(%)	-16.7	4.3	-22.3
영업이익	-48.9	6.4	4.0
영업이익률(%)	-19.2	2.4	2.0
순이익	-49.3	6.3	3.4
순이익률(%)	-19.3	2.4	1.6
부채총계	153.1	148.1	131.3
자본총계	-21.9	16.7	26.5
총자산	131.2	164.8	157.8
유동비율(%)	122.8	125.9	116.9
부채비율(%)	N/A	885.7	496.2
자기자본비율(%)	-16.7	10.1	16.8
영업현금흐름	-72.5	12.4	1.3
투자현금흐름	2.9	0.6	-2.6
재무현금흐름	16.1	-7.8	0.5
기말 현금	2.7	8.1	7.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데이터스트림즈(199150)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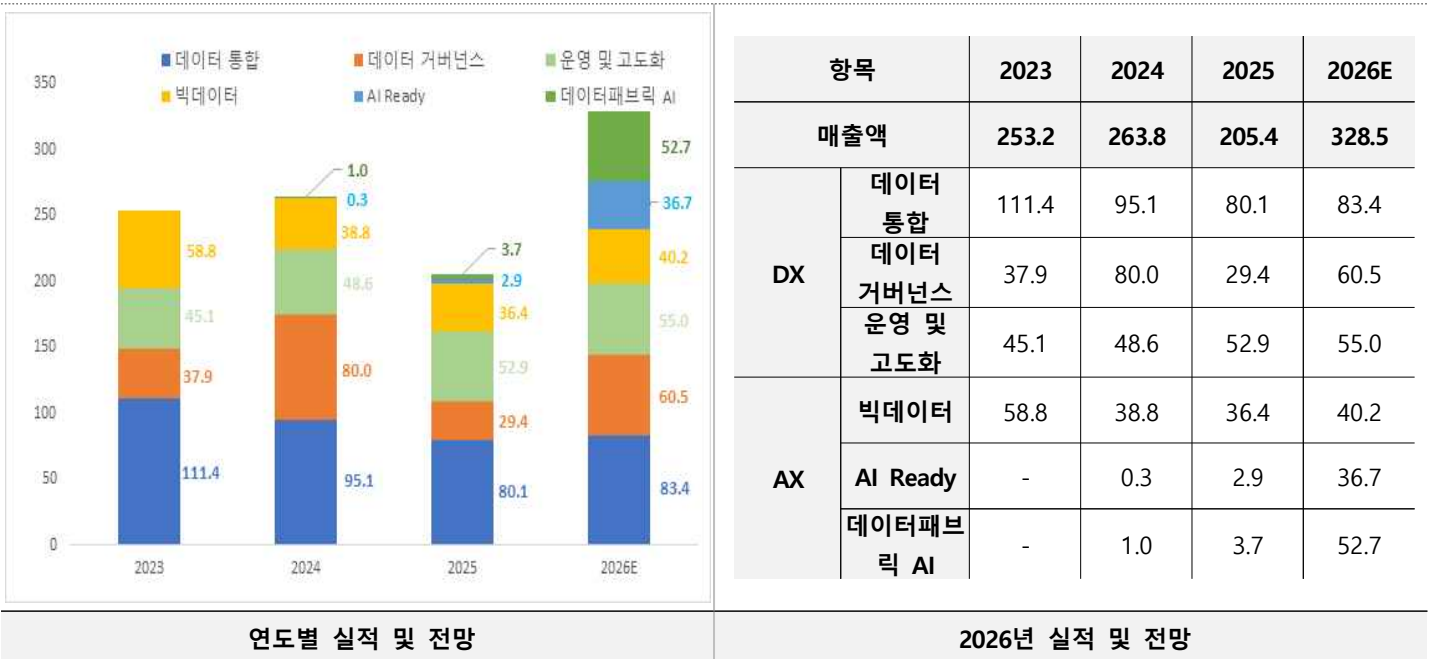
동사는 데이터통합·데이터거버넌스 부문의 공공·금융 부문 대형 사업 수주 회복 여부가 단기 매출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부문은 정부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조와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 정책에 따라 중장기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운영 및 고도화 부문은 3년 연속 매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 대비 R&D 비율 28.6%의 고강도 기술 투자를 통해 데이터 패브릭AI 등 차세대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 패브릭AI는 24년 1.0억, 25년 3.7억의 매출을 시현하며 2026년에는 52.7억의 매출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품의 본격적 매출 기여 시점에 따라 성장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2025년 12월 벤처기업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빅데이터·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와 정부의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이 동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속기업(중국·베트남·미국 100% 자회사)을 통한 해외 솔루션 공급도 점진적 매출 기여 확대가 전망된다. 2025년 주요 고객 집중도는 I사 29.5억 원(매출 14.3%), 2024년 N사 36.1억 원(매출 13.6%)으로 B2B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반 사업 특성상 단일 고객 변동성이 매출 변동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매출은 328.5억 원(별도기준)이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데이터통합 83.4억 원·데이터 거버넌스 60.5억 원·운영 및 고도화 55.0억 원·빅데이터 40.2억 원·AI Ready 36.7억 원·데이터패브릭 AI 52.7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2024년 완전자본잠식 탈피 이후 결손금 축소(△92.9억 원→△81.1억 원)와 부채비율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그림 8.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공공 AI·해외·파트너십-LLM 기반 4대 성장 축으로 재도약 준비 완료

동사는 공공기관 AI 플랫폼 레퍼런스 확보,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설립, LLM 기반 신기술 특허 확보, 넥스트I&I와의 컨설팅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AI-Ready Data 전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으며, AX 전환 수요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공공 AI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확보와 사업 영역 확장

동사는 한국도로공사 ex-GPT 사업을 수주하며 공공기관 사내 AI 구축 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향후 공공기관 AI 플랫폼 구축 수주 확대에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코넥스대상 대상 수상과 TeraONE SuperQuery™의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상 수상은 동사의 기술력과 사업 성과에 대한 대외적 인정을 재확인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관에 AI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DX·Data Driven 컨설팅,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며 성장 포트폴리오를 공식화한 점도 사업 확장의 가시적 신호로 해석된다.

■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설립으로 해외 성장 모멘텀 확보

2024년 6월 말레이시아 MRIC Alliance와 디지털 헬스 분야 합작법인 설립 협약을 완료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동 법인을 통해 현지 금융·헬스케어 기업 대상의 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영상 대표이사는 2025년 신년 인터뷰에서 해외 및 SOC 분야를 올해 핵심 성장 축으로 명시하였으며, 기존 베트남·미국 법인과의 시너지를 결합한 다각적 해외 시장 공략 전략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동남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 성장의 가시화가 기대된다.

■ 넥스트I&I와 AI-Ready Data 공동사업 협력으로 컨설팅 역량 확충

동사는 2026년 5월 IT 컨설팅 전문기업 넥스트I&I(대표 류재웅)와 금융·공공 분야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사업 협력을 공식화하였으며, 양사는 컨설팅 역량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AI-Ready Data 기반 협력 모델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킷오프 미팅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협력은 동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컨설팅 전문 역량을 외부 파트너십으로 보완하는 전략으로, 금융·공공 고객사의 AI 도입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성공의 전제 조건인 데이터 품질·거버넌스 체계 구축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이번 협력 모델이 신규 수주 확대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LLM 기반 신기술 특허 확보와 AI 플랫폼 고도화

동사는 2025년 LLM을 활용한 지식 그래프 자동 생성(10-2845839)과 멀티 모델 앙상블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10-2830267)을 연이어 등록하며 생성형 AI 기반의 데이터 관리 자동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은 IRUDA Navigator™의 AI 카탈로그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자동화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AI-Ready Data 솔루션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AI 도입 전 데이터 품질·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동사의 기술 방향성은 시장 수요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스트림즈(19915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성형 AI 답변 :

“데이터스트림즈는 국내 ETL 시장 선두 기업으로 25년 기술 자산 위에 LLM 기반 AI 거버넌스 기술, 해외 합작 법인, 컨설팅 전문 파트너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더하며, AX 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외 AI-Ready Data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 의견 예시(하단)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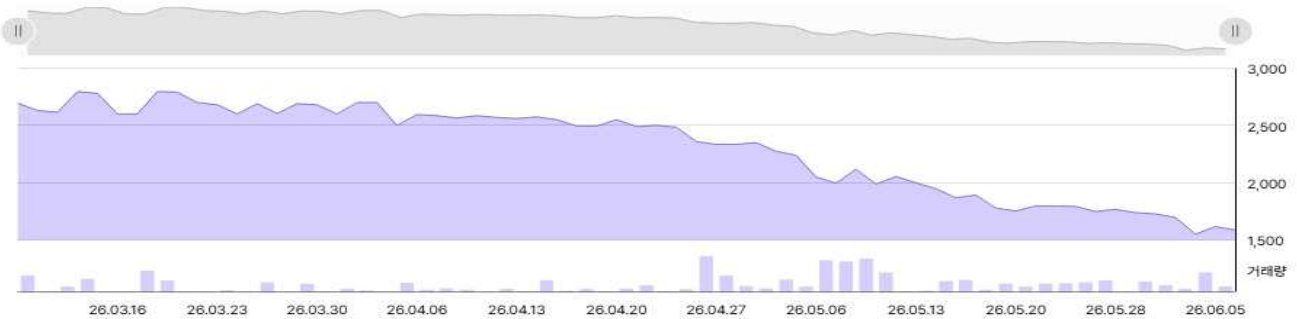
199150 코넥스

1,589 ▼30 -1.85%

단위 : 원, 주, % | 기준 일자 : 2026.06.08

전일 1,619 고가 1,619 거래량 618 주
시가 1,619 저가 1,589 거래대금 1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6.06.0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데이터스트림즈	X	X	X